

민 지 실 음 혜 천	Buddhanara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 시 칠일기도 입재 및 연등 만들기

셋째주 토요일 11 시 칠일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

넷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에게 귀의하면,

진실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네.

He who goes for refuge to Buddha, to Truth and to those whom he taught, he goes indeed to a great refuge. Then he sees the four great truth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7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까닭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 하신지 올해로 2551 번째 맞이하는 해이다. 한국 땅에도 불교가 전파된지 1635 년이 되고, 21 세기의 큰 사건의 하나인 서양의 정신세계의 대 변혁을 불러 일으킨 불교가 전파 된지 약 이백 여년이 되는 해가 된다. 아름다운 미시시피 강과 광활한 평야가 펼쳐진 아름다운 땅 미국 중부 세인트루이스에 한국 불교 전통의 중심에 그 뿌리를 둔 대한 불교 조계종 불국사가 들어온지도 올해로 5 년째가 되는 해이다.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 봄 중에서도 꽃이 만발하는 5 월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고귀하고 찬란한 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은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 외침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 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 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어 ‘붓다’ (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니르바나(열반)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인류의 대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깨달음의 법은 항상 큰 바다와 같이 출렁거리고 있으며, 영원한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다. 태양의 밝은 빛이 차별 없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로움도 시공을 초월하여 찬란히 빛나고 있다.

“이기적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고통과 번뇌가 시작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과 번뇌를 자신으로부터 건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참 나를 찾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비심으로 자타를 함께 감싸 안아 모두가 사랑과 대자비의 시공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사람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적 혼돈, 그리고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6 바라밀과 8 정도 실천을 정신수양과 생활의 밑바탕에 깔고 중도의 정신으로 갈등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도의 사고는 어느 쪽에도 손을 들지 않는 적당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양극을 부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자주적 행동 양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중도는 독선적인 주장보다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조용한 대화에 가깝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등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이 인류에게 남겨 주신 화합의 메시지로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려고 하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매년 불국사에서 천 육백년 동안 내려온 연꽃 등을 전통방식 대로 만든다. 등을 만들면서 그 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눔으로 하나 되기를 성취하고픈 마음을 담는다.

모두 2551 번째 맞이하는 성스러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등불을 밝힙시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실천의 등, 광명의 밝은 등불 들이 켜져 있을 때 갈등과 증오는 사라지고 자비광명이 충만할 것이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연꽃등 만드는 일도 수행”

전통불교에서 노동은 수행의 한 분야로 승가의 중요한 생활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운력(運力)’이란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 특히 매 안거철마다 제방선원에서 구도 정진하는 수좌스님들은 운력을 수행으로 삼아 일과 참선을 병행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2000 여개 연등을 만드는 윤력으로 산철(안거를 하지 않는 기간)결제를 회향하는 전통을 10 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선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한달 앞둔 지난 4 월 25 일, 전북 완주 위봉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위봉선원 비구니 수좌스님들과 함께 연등만들기 윤력에 나섰다. 산철결제 회향을 앞두고 위봉사 대중스님들과 함께 경내 극락전에서 25.26 일 양일간 진행된 연등 윤력에는 선원에 방부를 들인 수좌 30 여명 전원이 동참했다. 이틀 동안 연꽃등 1000 개, 컵등 1000 개 모두 2000 여개의 봉축등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위봉사 주지 법중스님을 비롯해 사중에 있는 모든 대중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극락전에 모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평균 5~10 분 사이면 1 개의 연등이 완성된다고 하니 손놀림이 모두 전문가 수준이다.

주지 법중스님은 “1990 년 위봉사에 선원이 문을 열고 이듬해 산철결제부터 수좌스님들과 연등을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16 년 동안 한 철도 쉬지 않고 연등을 만들었다”면서 “부처님을 장엄하는 윤력인 만큼 동참하는 수좌스님들 모두 수행하듯이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어 외호대중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0 년 동안거 결제부터 한 철도 거르지 않고 1 년에 4 번 결제를 이어온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비구니 선원인 위봉선원. 이곳에서는 본철, 산철과 상관없이 평균 30 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여 놓고 새벽 3 시부터 하루 10 시간 이상 정진하고 있다. 특히 산철결제를 하는 비구니 선원이 부족하다보니 산철에는 선방 정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기간에는 선방 안팎에서 참선과 윤력이 어우러진 다양한 구도정진이 이뤄진다. 위봉선원 입승 선연스님은 “본철에 비해 비교적 기간이 짧은 산철결제에는 윤력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신참에서 30 년 넘는 구참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연등윤력은 그 동안 사찰의 외호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모든 수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즐겁게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0 여개의 연꽃등은 오는 24 일 부처님오신날 오전 위봉사 경내를 장엄하게 된다. 또 컵등 1000 여개는 이날 사찰을 찾은 불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성금으로 쓰여 진다. 주지 법중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만드는 것은 수행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위봉사 연등윤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교 신문에서 발췌 -

지혜로 찾는 행복 세계와 인간 참모습 통찰하는 ‘수행’

붓다가 제시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법은 아주 분명하다. 그분이 제시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은 세계와 인간의 참모습을 통찰하는 일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초월자가 들려주는 진리를 소리로 ‘들으려’ 했다면, 그리스 로마인들은 진정한 실재를 형상으로 ‘그려’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붓다는 세계와 인간의 참모습을 ‘통찰(觀)’함으로써 진리를 찾았다. 붓다가 제시한 통찰의 방법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대념처경(大念處經)> 등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위빠싸나(vipassana : 관법) . 싸띠(satipattana : 마음챙김) . 사마타(samatha : 마음집중)이며, 프라즈나(prajna : 지혜)다. 세계와 인간 등 일체 존재는 자성이 없으며 그래서 결코 취착(取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투철한 통찰의 집중과 반복, 즉 일체 존재는 소유할 수도 영원케 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집중된 통찰의 반복이 붓다가 가르친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지혜며, 우리는 이 지혜로 깨닫는다. 물론 이것들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전부는 아니다. 사실 그간 불교라는 이름으로 고안된 수행법들은 모두 깨달음을 위한 방법일 수 있다. 통찰을 통한 지혜뿐만 아니라 지계(持戒)도 예배도 기도도 만트라(mantra : 眞言)나 무드라(mudra : 手印)도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깨달음을 위한 불교 수행의 특징은 수행자의 품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불교사가 성취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다. 병에 따라 약이

다양한 것처럼 수행자에 따라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법은 다양하다.

깨달음의 수행이란 달리 말하자면 무취착(無取着)과 무아의 실천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통찰의 수행이란 무취착과 무아의 진리를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이란 말은 아무래도 마음보다는 몸과 가깝다. 무취착과 무아를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법이다. 무취착행과 무아행, 즉 내 것 없음과 나 없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비행이다. 그간의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온전한 자비는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상하가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자비는 결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자비가 깨달음의 수행법이 될 가능성은 무취착행과 무아행의 실천이 자비행이라는 자체논리 외에도, 대승 혹은 보살행이라는 말마디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대승 보살행에서 깨달음은 자기의 깨달음이 아니고 세상의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보살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자비를 위해서 미루어지고 유보된다. 깨닫고 나서야 자비행으로 나서려 한다면 어느 누구 몇 사람이나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깨달음을 위해 일생을 화두 하나로 좌복 위에서 보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대신에 자비행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결코 한 순간도 손해 볼 일이 없다.

불교가 깨달음으로 행복을 찾지만 깨달음 목적주의는 아니다.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사회회화되어야 한다. 깨달음의 사회화란 깨닫고 나서 그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행의 실천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함께 깨달아가는 것이다.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으로서, 깨달음의 종교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자비의 종교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전도 당혹스럽다”

미 복음주의 본산 풀러신학교 리처드 마우 총장

“교회가 한 건물 안의 절 간판 치우는 건 비문화적” 한가족 안 다른 종교인들 섞어있을 때 해법도 제시

“종교 다르다고 남 화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리처드 마우(67) 풀러신학교 총장을 만났다. 풀러신학교 한국총동문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 2동 교육문화회관에서였다. 풀러신학교는 미국 개신교 복음주의권의 총본산이자 한국 목사들이 가장 많이 유학한 학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 길자연 목사와 서울 강남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등 내로라하는 교회의 주요 목회자들 상당수가 이 학교를 거쳤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릭 워런 목사도 이 학교 출신이다.

마우 총장은 복음주의권 목사들을 길러내면서도 <무례한 기독교>와 <왜곡된 진리> 등의 저서를 통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가 영향력 있게 전파되게 하자면 성도들은 타인을 향해 일반적인 정중함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닮은 정중함을 지녀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친절하고 온유한 정신, 즉 시민교양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의 경우 한 건물 안에 교회와 절이 함께 있을 만큼 세계 유일의 다종교 사회인 한국만큼 그의 종교적 ‘시민교양’이 필요한 곳은 없다. 그래서 “며칠 전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교회가 기존에 있던 절의

간판을 치워버린 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교회 교인들이 비문화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며 이교도들을 전도했던 바울 이야기를 해주었다. “바울은 이교도에 대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종교성과 영성을 인정하면서 대화에 나서 ‘당신의 종교 시인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지 않느냐’면서 예수의 복음을 함께 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 가족 내 다른 종교인이 모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나름의 방법을 제시했다.

“풀러신학교에 온 한 한국인 학생이 ‘가족의 장례식 때 불교도인 가족이 향을 피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상담해 좋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런 예식뿐 아니라 휴일에 가족이 모일 때 종교가 다르다고 참석을 하지 않아 가족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한 이후 기독교의 기도에도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 그는 또 거리와 지하철, 버스 등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새해 첫날 거리에서 꽃차 행렬을 벌일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피켓을 들고 뒤따르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풀러신학교에선 올해 슬로건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음주의권에서 강렬히 반대하는 동성애자 문제도 짚었다. 마우 총장은 “풀러신학교에선 신학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목회자적 견지에서선 성적 소수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내와 겸손, 느림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정통 신학자의 ‘복음’이 승리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마우 총장은 신촌성결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제자교회와 서울신대, 한세대, 백석대, 총신대 등에서 설교한 뒤 오는 9일 출국한다.

5 월 2 일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글·사진 조연현 기자

이달의 경전 공부 장아함경: “깨달음은 자기 수행 통해 이뤄진다”

어느 때 부처님이 라자그라하에 계시다 1200 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바이샬리에 도착하였다.

그때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여 다른 데 귀의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유명한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설법이다. 불교의 수행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하는 자력 수행이다. 물론 신앙적인 방편에서 본다면 불·보살께 귀의하고 의지하는 타력적인 요소가 있으나 궁극적인 깨달음의 성취는 자기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 종교라 하며, 사람이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본위의 수행이므로 인본주의 종교라 한다. 이것이 불교의 특징이다. 위의 부처님 말씀은 <아함경> 가운데 <장아함경(長阿含經)>에 나오는 이야기다. 불교의大本이라 할 수 있는 말로 인본주의 자력종교이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은 같다는 것이다. 후에 대승경전이 나오면서 이 뜻은 더욱 강조되어 설해진다. 깨달으면 나도 부처다 하는 논리는 부처를 인간 안에서 찾고 인간 밖에서 찾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아함경>은 계빈국 삼장이었던 불타야사가 축념불과 함께 후진 홍시(弘始)16년(서기 413)에 번역한역대장경에 수록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4아함 중 <장아함경>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속해 있는 경전으로

중아함, 잡아함, 중일아함과 함께 초기설법의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남전 팔리어본의 장부와 같은 것으로 전부 22 권이며, 그 내용이 30 개의 소품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과거 7 불의 출생과 출가, 수도, 성도, 설법 그리고 열반에 드는 등의 8 가지 장면을 성해 놓은 <대본경> 에서부터 <기세경> 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설해져 있는데 결국 부처님 해탈도를 설하고 나아가 중생을 교화하는 구제의 길과 신앙을 이야기 한다.

미륵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염불사상과 탑사(塔寺) 공양의 공덕을 찬탄해 놓은 내용도 있다. 자동명법등명의 내용은 <전륜성왕수행경> 에 나온다.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할 뿐 수행자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장아함경> 을 읽어보면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 9 <중집경> 에 보면 부처님이 등이 아파 통증을 느끼자 사리불에게 대신 설법을 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부처님이 몸이 불편하여 제자에게 대신 설법을 시키는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승경전에서 볼 수 없는 아함경다운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른다. “나는 등이 아파 좀 쉬고 싶으니 네가 비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어라.” 이에 사리불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법이 올바르게 못하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래의 법은 올바르게 참되어 해탈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냄과 원한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교법과 계율을 모아 청정한 수행을 쌓아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해야 하겠습니다.”

봉 축 기 도

온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1 년 5 월 13 일 (양력)에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고, 5 월 20 일에는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갖습니다.

불기 2551 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는 일년 연등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일년 연등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동참은 5 월까지 접수 합니다. 가족등 및 일인 일등 모두 접수 받습니다. 기도 동참금은 \$50.00 (한국은 오만원) 입니다.

일년 연등 공양 기도 동참하신 불자님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가족등은 대주 이름만 올립니다.): 0 세계 평화 불사 원만 성취, 1 번 계사생 백정수, 2 번 계묘생 임경순, 3 번 법련화 장태수, 4 번, 정법안 조양임, 5 번 정유생 박래경, 6 번 무술생 백련화 김효례, 7 번 기사생 박으뜸, 8 번 신미생 박꽃별, 9 번 무인생 박셋별 10 번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11 번 무자생 문병현, 12 번 임인생 문병귀, 13 번 계묘생 죽송 박준현, 14 번 을미생 이상돈, 15 번 무자생 김대원, 16 번 무신생 위승림, 17 번 기축생 김현웅, 18 번 신유생 염옥희, 19 번 임진생 조남국, 20 번 무술생 현심행 김설아, 21 번 갑자생 조민우, 22 번 김대성, 23 번 경진생 능공 신봉길, 24 번 무인생 김순옥, 25 번 정미생 황현식, 26 번 기사생 김재수, 27 번 갑오생 임현철, 28 번 정축생 신숙우, 29 번 정묘생 황보희, 30 번 Lawson "Robinson, 31 번 임임생 강효정, 32 번 계유생 송의혁, 33 번 갑술생 송민경, 34 번 갑술생 이갑상, 35 번 기묘생 김미형, 36 번 계축생 조보영, 37 번 을사생 이창우, 38 번 계미생 김진혁, 39 번 무자생 김진택, 40 번 기미생 이현수, 41 번 갑인생 전영아, 42 번 갑술생 이주영, 43 번 무진생 이수진, 44 번 기축생 이유림, 45 번 계미생 이지영, 46 번 갑인생 신재준, 47 번 경술생 김두현, 48 번 임자생 김두환, 49 번 기미생 김지연, 50 번 계미생 우미자, 51 번 신사생 김태근, 52 번 병술생 권기남, 53 번 갑인생 김훈정, 54 번 기사생 김지현, 55 번 갑신생 정석영, 56 번 갑인생 김희선, 56 번 기해생 정 씨, 58 번 갑신생 서정래, 59 번 갑오생 이정숙, 60 번 신축생 광영식, 61 번 병오생 광효식, 62 번 병오생 김태근, 63 번 갑술생 김희령, 64 번 무인생 김희현, 65 번 을사생 이상현, 66 번 무진생 이정훈, 67 번 경자생 백조현, 68 번 계묘생 노갑순, 69 번 계유생 백정식, 70 번 경오생 백지연, 71 번 임신생 백재이, 72 번 을묘생 김대훈, 73 번 을묘생 김문희, 74 번 임오생 김승민, 75 번 을사생 김세환, 76 번 을사생 김홍연, 77 번 기유생 고승완, 78 번 신묘생 홍성범, 79 번 임오생 이진영, 80 번 경진생 박영찬, 81 번 을미생 나순자, 82 번 계해생 안진형, 83 번 경신생 안주현, 84 번 갑오생 안중재 ((John Ahn), 85 번 무술생 강운식, 86 번 임인생 김유미, 87 번 무진생 강희백, 88 번 경오생 강희재, 89 번 무자생 홍해식, 90 번 갑술생 김영자, 91 번 무오생 홍창민, 92 번 신묘생 홍주리, 93 번 신축생 김용직, 94 번 임인생 공은영, 95 번 갑인생 조영우, 96 번 병오생 홍대선, 97 번 무인생 현덕 홍준수, 98 번 경술생 청정행 정혜주, 99 번 무자생 우여곤, 100 번 정해생 김영목, 101 번 갑오생 배재현, 102 번 병인생 배 진, 103 번 계축생 김종관, 104 번 을유생 김명환, 105 번 임진생 장경래, 106 번 갑오생 길상주 임태훈, 107 번 병오생 이찬혁, 108 번 Mark Frank, 109 번 기유생 심경수, 110 번 병오생 노덕복, 111 번 정해생 한복희, 112 번 계유생 Jack Benton .

일년 영가등 공양 기도 동참하신 영가님들 : 1 번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불국사 복위), 2 번 남평후인 문정모 영가 (문병현 복위), 3 번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남평후인 문길한 영가,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문병현 복위), 4 번 원주후인 변봉길 영가, 차씨유인 차용녀 영가, 원주후인 변응규 영가 (변정자 복위), 5 번 순응 유인 안금례 영가, 6 번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김동희 복위), 7 번 금영후인 김명기 영가 (김미형 복위), 8 번 인천후인 이성용 영가 (이갑상 복위), 9 번 이씨 수자 영가 (김미형 복위), 10 번 남양후인 홍정표 영가, 천안유인 전병윤 영가 (심윤자 복위), 11 번 전주후인 이종구 영가, 제주유인 고성여 영가 (이진영 복위), 12 번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진학미 영가 (박수민 복위), 13 번 밀양 박씨 선망 조상 일체 영가 (박래경 복위), 14 번 파평유인 유상옥 영가 (김미형 복위), 15 번 제주후인 고씨 영가 (이수진 복위), 16 번 죽산후인 안창호 영가 (안중재 복위), 17 번 달성 배씨 조상 영가 (배재현 복위), 18 번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최문선 복위), 19 번 탐진 최씨 조상 영가 (최문선 복위), 20 번 차옥녀 영가, 김해후인 김원근 영가 (김현웅 복위), 21 번 김녕유인 김분조 영가 (이갑상 복위), 22 번 밀양유인 손씨 영가 (김미형 복위), 23 번 작은 외조모 영가 (김미형 복위), 24 번 외조모 청주유인 한씨 영가 (김미형 복위), 25 번 친구 양찬모 영가 (김미형 복위), 26 번 외조부 함안후인 조씨 영가 (김미형 복위), 27 번 김의식 영가 (김미형 복위), 28 번 김대점 영가 (김미형 복위), 29 번 태증 영가 인천유인 이계묘 영가 (김미형 복위) .

그 외 동참하신 영가님들: 캄탐슨 영가, 다케다 데이비드 영가, 인현이씨 일체 수자 영가 (이갑상 기부), 금녕김씨 영가 (김미형 복위), 인동유인 장기현 영가, 경주유인 최숙희 영가, 김해 유인 김선녀 영가, 전주이씨 수자 영가 (이웅수 기부), 경주 최씨 수자 영가 (최형부 기부), 경주유인 최숙희 영가, 전주유인 최칠순 영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기도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올려 드린 명단은 4 월 말까지 등록된 명단 입니다. 최종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은 6 월 소식지에 올려드립니다.

법회소식 NEWS

- 부처님 오신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양력 5월 24일 (음력 4월 8일) 은 2551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평일날 인 관계로 5월 13일 7일 기도 입재 및 연등 만들기 5월 20일 7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7일 기도 후에 연등은 1년간 법당에 올립니다. 2551 번째 맞이하는 연등 불사에 모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권선해 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관동 모연문” 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년 연등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일년등은 5만원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영가 일년 연등도 동일하게 50불 입니다. 형편에 따라 1인 1등으로 하실 것인지 가족 등으로 일년 등을 켜실 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 양력 5월 24일 (음력 4월 8일)은 2551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만 평일날 인 관계로 올해에도 5월 24일 바로 앞에 위치하는 5월 20일 일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갖습니다.
 7일 기도 입재 및 연등 만들기: 5월 13일 (둘째주 일요일) 11시
 7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 5월 20일 (셋째주 일요일) 10시 30분
 1부: 기도회향 및 헌공
 2부: 법 요 식 (명종, 점등, 관불의식, 헌화, 설법 등)
 3부: 가든 파티
- 2째주에 있는 인등기도 법회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4째주에 있겠습니다.
- 셋째주 일요일에 있는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 가 있는 전법기도 법회날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는 관계로 인해 5월달은 쉽니다. 6월달 부터는 예정대로 매달 3째주 일요일에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가 있겠습니다.
- 불국사 후원회 회원이신 양순영 보살님께서 그동안 어려운 암투병을 3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처님의 가피력, 본인 자신의 힘, 그리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암을 완전히 떨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양순원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 4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3번 병술생 김세영, 147번 갑인생 조영우, 409번 무술생 황전하, 410번 신축생 장명자, 413번 임인생 송완근, 414번 임인생 임영애, 417번 을미생 이상돈, 418번 무술생 이미란, 419번 임술생 이선화, 420번 갑자생 이지형, 421번 을사생 양호선, 422번 을사생 김형남, 423번 신미생 김활안, 424번 계유생 김용성.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